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와 그 활용 가치*

-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김 미 선**

- I. 머리말
- II.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
 - 1. DB :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 2. 저서 :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 III.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활용 가치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를 살펴보고,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의 활용 가치를 정리하였다.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사례로, 먼저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분야에 230편의 호남지역 일기자료 DB가 구축되어 있었다. DB를 살펴본 결과 판본이나 수록 형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한문으로

*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1일에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회의 “일기류 자료의 종합 조사와 방법론 모색”에서 발표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새로운 논의를 덧붙인 것이다.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paraoho@hanmail.net

쓴 개인일기' 중 '호남사람이 쓴 일기자료',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하여 DB로 구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저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는 연구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565편이라는 가장 많은 호남지역 일기자료가 집성되어 있어 조사정리 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의 시기별 현황을 살펴면서, 세기별로 일기 목록 전체를 제시하여 어떠한 일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 전체적으로 일기의 범주, 시기별·내용별 분류 기준 및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의 활용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일기자료 조사정리를 위한 범주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일기자료 해제 및 DB 구축을 위한 항목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일기자료의 시기별·내용별 정리 기준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 주제어

호남지역, 일기자료, 호남기록문화유산, 호남문집, 조사·정리, DB 구축, 활용 가치

I. 머리말

일기자료는 선조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문학·사학·철학·지리학·민속학·문화콘텐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가 반영되어 객관적인 역사기록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역사적 상황 속 개인들의 삶과 의식을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높다.

선조들의 일기자료 속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다양한 일들이 담겨 있다.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생활일기 속에는 자식의 탄생과 육아, 수학과 과거시험, 여행과 관직생활, 혼인과 제사, 치료와 장례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정한 시기 동안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일기로는, 유람이나 일 때문에 여행을 떠났던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체험을 기록한 전쟁일기,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유배일기, 사신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사행일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정한 경험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관청이나 공동체에서 쓴 일기들도 존재하여, 한 시기에 관청이나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볼 수가 있다. 또한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일기자료 속에는 그날 쓴 한시, 가사, 편지, 제문, 상소문 등의 삽입이 쉬워, 일기자료 자체가 자료의 보고(寶庫)가 되기도 한다.

일기자료는 선조들의 삶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현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조사·정리는 미진한 실정이다. 1990년대에 정구복, 정하영, 염정섭 등이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가치, 성격, 의의 등을 언급한 이래로,¹⁾ 2007년 황위주가 1,602편 일기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제시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정리 성과이

1) 정구복, 「朝鮮朝 日記의 資料의 性格」,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다.²⁾

이후 2011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5~2018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일기자료 해제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3 - 일기류』에 소장한 일기자료 중 126편에 대한 해제를 수록하였고,³⁾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권씩 간행한 『조선시대 개인일기』에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자료 115편에 대한 해제와 1,142편에 대한 간략한 목록을 수록하였다.⁴⁾

그리고 현재 목록, 해제, 원문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DB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학진흥원 일기류DB’⁵⁾가 있

2)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말미에 1,602편의 ‘일기명, 저자, 보관장소, 판본/권/책, 연도, 비고’를 밝힌 목록 「조선시대 일기류 목록과 소장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최은주도 논문을 발표하였으며(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황위주는 이외에도 일기자료 관련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3)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3 - 일기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4)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1 - 대구·경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2 - 인천·경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3 -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4 - 충청·강원·전라·경남』,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이 해제집에 수록된 일기자료 편수를 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해제 일기자료 편수	목록 일기자료 편수
1권 대구·경북	30	166
2권 인천·경기	26	154
3권 서울	32	650
4권 청·강원·전라·경남	27	172

5) 누리집의 주소는 ‘<http://diary.ugyo.net/>’이며, 첫 화면에는 ‘선인의 일상 생활, 일기’

어, 2020년 1월 현재 935편의 일기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다.⁶⁾ 이러한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는 일기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리된 일기자료는 전체 일기자료의 일부로, 앞으로 조사·정리해야 할 일기자료가 많다.

최근 김미선은 기존의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를 활용하고 문집 등을 조사하여 1,279편의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확인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⁷⁾ ‘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 기행일기로 분류된 일기가 149편이니, 얼마나 많은 일기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호남문집에 수록된 일기’로 제한을 두고 일기자료를 조사하여 565편을 확인, 이에 대한 연구서도 간행하였는데 이중 황위주의 일기자료 목록과 중복된 일기는 27편에 불과하였다.⁸⁾ 이는 아직 많은 일기자료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기자료 중 간행되지 않은 필사본은 유일본일 수 있어 문헌이 훼손되거나 유실되기 전에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문헌 속에 들어 있거나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일기자료들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일기자료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시간별, 공간별, 주제별, 서명별, 저자별로도 분류되어 있다. 기존에는 ‘유교넷(<http://www.ugyo.net/>)’이라는 누리집 하위에 고도서, 고문서 등과 함께 ‘일기류’라는 이름으로 DB가 있었으나, 2019년경부터 ‘국학진흥원 일기류DB’라는 명칭으로 일기자료 누리집이 분리되었다. 일기자료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주제별, 저자별로는 935편, 서명별로는 793편이 정리되어 있다.

7)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각각 2019년 5월과 7월에 발표된 논문이며 이외에도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관련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논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53,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9.

8)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293쪽.

한국의 일기자료를 조사·정리하는 일은 매우 거대한 작업으로, 지역별로 조사·정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에 조사하다보면 공간도 넓고 자료도 많아 일기자료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의 연구자들은 지역 내 문중과 같은 문헌자료 소장처에 대한 정보가 많고 지리적으로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지역별로 일기자료를 조사·정리하고 그러한 성과를 모으는 것이 한국의 일기자료를 정리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강원지역, 경기지역, 영남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 등으로 지역을 나누어보았을 때, 현재 지역별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은 호남지역이다. 호남지역도 일기자료 전체에 대한 조사·정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에 집중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230편에 대한 DB, 호남문집에 실린 일기자료 565편에 대한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일기자료 조사·정리를 거의 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는 중요한 예시가 되며, 앞으로의 일기자료 조사·정리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를 살펴보고,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의 활용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

호남지역 일기자료 중 최부(崔溥, 1454~1504)의 『표해록(漂海錄)』,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와 같은 개별 일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호남지역 일기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한 성과물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⁹⁾ 내의 일기자

9) <http://www.memoryhonam.co.kr/>

료 DB, 저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¹⁰⁾가 그것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에 대해서는, 2015년에 호남지역 일기자료의 연구 현황을 살핀 논문에서 언급된 바 있다.¹¹⁾ 이는 연구 현황의 일부로서 간략히 살핀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이후의 성과를 반영하고, 조사·정리 사례로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에 간행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경우 연구서이지만, 호남문집에 실린 일기자료 565편에 대한 목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정리 성과물이기도 하므로,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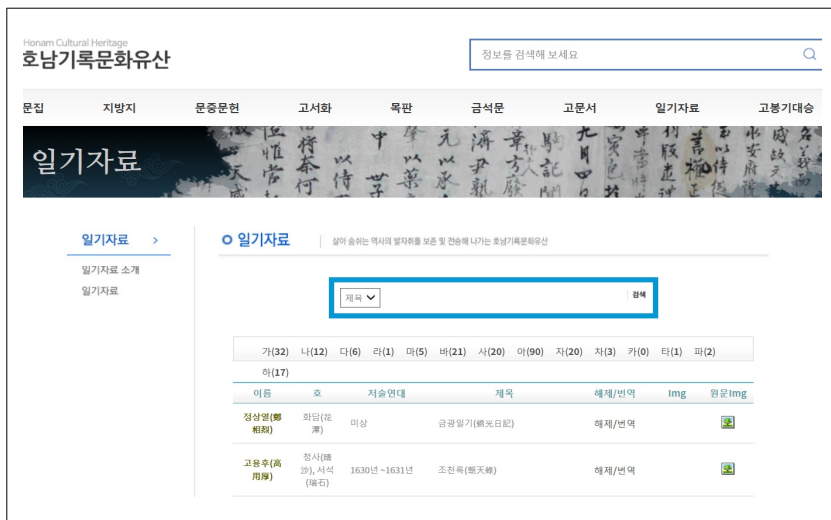
1. DB :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호남기록문화유산’은 호남지방문화연구원(구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 전연구실)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의 결과물을 탑재하고 있는 누리집 명칭이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일기자료 분야는 2012년부터 DB 구축이 이루어졌다.¹²⁾ 2020년 1월 현재 문집, 지방지, 문중문헌, 고서화, 목판, 금석문, 고문서, 일기자료 등 8대 분야에 대한 DB와 호남인물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고봉기대승’, ‘문화유산스토리텔링’, ‘스토리뱅크’, ‘번역자료실’ 등 주제별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10)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11)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이 논문에서는 호남지역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을 ‘일기자료 전반에 대한 연구와 호남지방 일기자료’,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 ‘호남지방 일기자료 개별 작품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2) 김대현·김미선, 앞의 논문, 2015, 51~52쪽.



〈그림 1〉 ‘호남기록문화유산’ 누리집 일기자료 부분 화면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분야에는 2020년 1월 현재 230편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다. 일기자료 분야를 클릭하면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목록이 펼쳐지는데, 목록은 ‘이름, 호, 저술연대, 제목, 해제/번역, Img, 원문Img’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Img’와 ‘원문Img’는 원전을 사진 촬영 또는 스캔을 통해 이미지화 한 것으로 ‘Img’에는 2~4컷의 일부 이미지가, ‘원문Img’에는 원전 전체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다. 초기에 DB 구축한 것에는 일부 이미지만 탑재되어 있고, 2016년 이후에 DB 구축한 것에는 전체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다. 현재 목록은 탑재 순서대로 제시된 듯하며, 최근 수록된 것을 가장 먼저 볼 수가 있다.¹³⁾ DB화되어 있는 일기자료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가 32편, 나 12편, 다 6편 등 가나다순으로도 분류되어, 이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일기 목록이 다시 제시된다. 이 경우 저자 이름이나 일기 제목이 해당 자음으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며, 때로는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찾고자하는 일기가 있다면 검색을 통해 찾는 것이 빠르다.

〈표 1〉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 편수

DB 구분	일기자료 편수	비고
기초 DB	170	2012~2015년 DB 구축
기초 DB 및 원전 전체 이미지	60	2016년 이후 DB 구축
전체	230	

누리집 ‘일기자료 소개’ 부분의 ‘진행상황’ 설명을 보면, 일기자료 분야는 2012년부터 DB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80편, 2013년 30편, 2014년 30편, 2015년 30편으로 꾸준히 기초 DB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2016~2017년에는 40편의 기초 DB 및 원전 전체 이미지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설명은 ‘2017년 5월’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DB 추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기자료 목록 확인 결과 20편의 기초 DB 및 원전 전체 이미지가 더 구축되어 있는데, 이걸 2018년 이후에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기초 DB’는 기초적인 DB라는 뜻으로, 연구팀에서 사용한 용어를 가져온 것이다.¹⁴⁾ 일기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상단에 이미지가 보이고 하단에 ‘인물정보, 해제, 번역예시’가 구분되어 있다. 목록의 가장 처음 부분에 실린 일기는 정상열(鄭相烈, 1876~1942)의 『금광일기(錦光日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실린 일기는 임기현(任奇鉉, 1874~1955)의 『금강산유상일기(金剛山遊賞日記)』이다. 이중 『금강산유상일기(金剛山遊賞日記)』의 ‘인물정보’와 ‘해제’ 부분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4) 주간으로 간행되던 『시민의 소리』에 ‘호남기록문화유산’ 전체에 대해 설명한 기고문 ‘호남기록문화유산(1) 집대성 하다’(2016년 1월 18일~24일)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초 DB화’란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의 소리’ 누리집(<http://www.siminsori.com/>)을 보면 2015년에 10회, 2016년에 31회에 걸쳐 ‘호남기록문화유산’ 관련 기고문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인물정보

자	치선(致善)
호	노석(老石)
본관	장흥(長興)
생몰년	1874~1955
생애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입석리에서 임사운(任思雲)과 광산김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나중에 임사성(任思聖)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조 참판에 추증된 국담(菊潭) 임희중(任希重)의 12대손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유학을 학습하였고, 죽곡정사(竹谷精舍)에서 강학한 회봉(晦峰) 안규용(安圭容)과는 죽마고우였다. 낙천(樂川) 이교친(李敎川), 소파(小波) 송명회(宋明會),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계산(桂山) 심기순(沈琪淳), 매창(梅窓) 박태선(朴泰璿), 소천(小川) 박우룡(朴佑龍),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 등과 교유하였다. 한시와 조각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문집유무	노석유고(老石遺稿), (안동교 율김, 도서출판 심미안, 2008)

* 해제

형태사항: 필사본, 가철 문서, 21.8×18.7cm, 총 28장 현소장처: 임종모가 1933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8월 27일까지 약 한 달쯤 서울·금강산·문산·개성 등지를 여행한 일기이다. 친구 안규용이 회갑을 맞아 금강산 유람을 떠나자, 그 소식을 듣고 임기현·송운회·심기순이 동행하면서 일기가 시작된다. 여행은 주로 기차를 이용했는데 보성 명봉역(鳴鳳驛)에서 출발하여 광주를 거쳐 서울 남대문역에서 내렸다가, 의정부역·철원역을 거쳐 내금강역에서 하차하였다. 7월 25에 출발하여 30일까지는 서울을 관광하고, 8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금강산을 유람하였으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서울에 머물면서 김영한(金甯漢)과 윤용구(尹用求)를 방문하였다. 19일에 관서행 기차를 타고 문산과 개성으로 떠나 22일까지 관광한 뒤, 다시 23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 글 속에는 시골 선비가 멀고 오랜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화와 감회를 읊은 다수의 시가 들어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사용된 생활용어들이 틈새에 끼어있어 제법 흥미를 자아낸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은 당대의 석학 김영한(金甯漢)이 임기현의 구룡대(九龍臺) 시를 보고, “선진(先晉)이나 만당(晩唐)의 시인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논평한 곳이다.(안규용, 필사본 「유풍악기(遊楓嶽記)」. 송운회, 『설주유고』 「유금강기(遊金剛記)」 참조)

‘인물정보’ 부분은 ‘자, 호, 본관, 생몰년, 생애, 문집유무’로 나누어져 있다. 항목이 위와 같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일기별로 보아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애’ 부분은 서술식이기 때문에 분량에 차이가 있었다. ‘해제’의 경우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형태사항’, ‘현소장처’를 쓴 경우도 있었고 쓰지 않고 일기에 대한 설명만 실은 경우도 있었다. ‘해제’의 경우도 일기에 따라 분량에 차이가 있지만, 이 기초 DB를 통해 일기의 저자 및 일기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다.

‘번역 예시’의 경우 적게는 1일, 많게는 8일 정도의 일기 번역을 제시한 것으로, 아래는 『금강산유상일기』의 ‘번역 예시’를 예로 든 것이다. 일기 설명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주요 부분의 ‘번역 예시’를 보면 해당 일기자료를 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 『금강산유상일기』 ‘번역 예시’에는 아래에 제시한 1933년 7월 28일의 일기 외에 1933년 8월 2일, 8월 5일, 8월 6일, 8월 12일의 일기 번역이 더 수록되어 있다.

* 번역 예시

1933년 7월 28일 맑음

이 날은 곧 회봉 안규용 형의 환갑날이다. 이몽재(李夢載) 군이 찾아와 “오늘은 회봉 선생의 생신이니 술 한 잔을 올려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낙원동(樂園洞)에 있는 명월관(明月館)으로 모시고 갔는데,

화려한 집과 꾸민 술상은 실로 시골의 한미한 선비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명의 기생을 불러서 술을 권하게 하니, 그들의 자태와 가무(歌舞)는 절묘하다고 이를 만했다. 종일 취하게 마시고 배부르게 먹은 뒤에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번역만 실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문 텍스트와 번역이 함께 실린 경우도 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기초 DB를 구축하면서 큰 틀은 유지하였지만, 각 항목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준 듯하다.

일기자료 중 일부는 전체적으로 번역되어 ‘호남기록문화유산’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일기자료 전체 번역은 ‘호남기록문화유산’ 누리집 내 ‘번역자료실’의 일기류 부분에 탑재되어 있으며, 한문 번역과 원문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가 번역된 일기자료는 김용구(金容球, 1862~1918)의 『의소일기(義所日記)』, 김재일(金載一, 1749~1817)의 『묵헌일기(默軒日記)』, 김태순(金泰淳, 1832~1889)의 『백봉일기(白峰日記)』, 박윤간(朴潤侃, 1901~?)의 『박윤간일기(朴潤侃日記)』, 위계상(魏啓尙, 생몰년 미상)의 『일기(日記)』, 이흠(李嶽, 1842~1928)의 『서유만록(西遊漫錄)』, 임병찬(林炳瓚, 1851~1916)의 『창의일기(倡義日記)』 등 총 7편이다. ‘번역자료실’의 ‘일기류’에는 양주남(梁柱南, 1610~1656)의 『사송일기(四松日記)』도 있는데, 이는 일부분의 번역만을 실고 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108일간의 일기 번역을 실고 있어, 기초 DB의 ‘번역예시’보다 훨씬 양이 풍부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기들이 호남지역 일기자료로 선정되었을까?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를 살펴본 결과 ‘호남지역 일기자료’의 기준은 ‘호남사람이 쓴 일기자료’,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자료’ 등 두 가지로 나타났다.

위에서 예를 든 임기현의 『금강산유상일기』의 경우는 ‘호남사람이 쓴 일기자료’에 속한다. ‘인물정보’와 ‘해제’에서 보듯이 임기현은 전남 보성

사람이고, 일기는 서울·금강산 등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호남지역 여행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사람이 쓴 일기이므로 ‘호남지역 일기자료’에 포함시킨 것이다. 호남사람이 쓴 일기의 경우 임진왜란 때 포로로서 일본에 있다가 중국으로 탈출했던 일을 기록한 나주 사람 노인(魯認, 1566~1622)의 『금계일기(錦溪日記)』를 포함시킨 것과 같이 일기의 배경 지역에 상관없이 호남지역 일기자료로 보고 있었다. 물론 전남 나주 사람인 김만영(金萬英, 1624~1671)이 남평현(현 나주)에서 살 때의 일을 기록한 『남교일기(南郊日記)』와 같이 ‘호남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호남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는 당연히 호남지역 일기자료에 포함되며,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에 수록된 일기 중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자료도 일부 확인된다. 김익동(金翊東, 1793~1860)의 『호남기행(湖南紀行)』, 김령(金璚, 1805~1864)의 『간정일록(艱貞日錄)』 같은 일기가 이에 해당된다. 김익동은 경북 경산 사람이나 전남 지도에 유배중인 유치명을 만나기 위해 1855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남지역에 다녀온 일을 기록하였고, 김령은 경남 단성 사람이나 1862년 7월부터 1863년 8월까지 약 1년간 전남 임자도에서 유배 생활 할 때의 일을 일기에 기록했으므로 이들의 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로 개인일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물정보’ 아래에 ‘자, 호, 본관, 생몰년, 생애, 문집유무’를 넣은 것으로 보아 개인일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30편 중 관청이나 공동체의 일기로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나주 관아에서 기록한 『금성일기(錦城日記)』 한 편만을 볼 수 있다.

나주 관아의 일기인 『금성일기』는 고려시대인 1358년부터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개인일기들은 조선시대부터 20세기 근현대까지 저술된 일기이다. 1420년에 회례사로서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송희경(宋希璟, 1376~1446)의 『노송당일본행록(老松堂日本行錄)』부터 1954~1955년에 안중선(安鍾宣, 1899~1992)이 선조 안방준의 묘소 아래 신도비

를 건립할 때의 일을 기록한 『봉산일기(蓬山日記)』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호남지역 일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에 DB로 구축된 일기는 모두 한문으로 쓰인 것이다. 필사본·간행본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단일본으로 전해지는 일기와 문집과 같은 문헌 내에 수록된 일기도 포함되어 있다. 판본이나 수록 형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한문으로 쓴 개인일기’ 중 ‘호남 사람이 쓴 일기자료’,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하여 DB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는 ‘호남지역 일기자료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정리’¹⁵⁾로서 의의가 있다. 또 이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정리하고 DB를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여, 영남지역 등 다른 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시 중요한 예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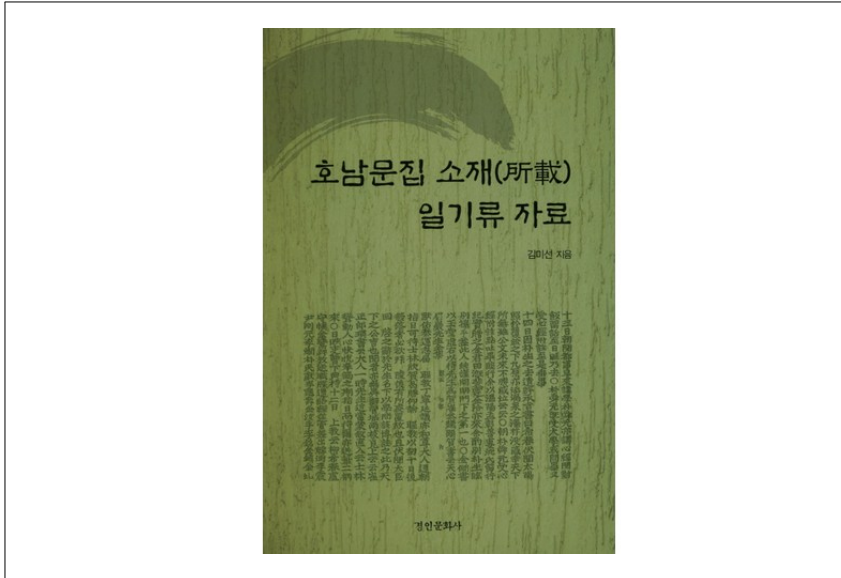
2. 저서 :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는 2018년 11월에 경인문화사에서 출판된 저서이다. 저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창의연구지원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 연구’라는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약 2년간의 조사를 통해 565편의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를 조사정리하였고, 이 일기자료들을 바탕으로 저술한 최종 연구 성과물이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이다.¹⁶⁾ 이 책은 해제나 DB와 같이 일기를 정리한 성과라기보다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를 분석한 연구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565편이라는 가장 많은 호남지역 일기자료가 집성되어 있고, 565편 전체의 목록을 제시하고

15) 김대환·김미선, 앞의 논문, 2015, 56쪽.

16)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서의 ‘머리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다.

있어,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사례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표지

이 저서는 총 다섯 개의 장과 한 개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차를 바탕으로 저서의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내용

연번	장의 제목	세부 내용
I	호남문집과 일기류 자료의 수록	1. 호남문집의 현황과 일기류 자료 조사 2. 호남문집에 실린 다양한 일기류 자료 3. 호남문집과 일기류 자료의 상관관계

II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시기별 현황	1. 14~15세기 3. 17세기 5. 19세기	2. 16세기 4. 18세기 6. 20세기
III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내용별 분류	1. 생활일기 3. 관직일기 5. 사행일기 7. 전쟁일기 9. 사건일기	2. 강학일기 4. 기행일기 6. 유배일기 8. 의병일기 10. 장례일기
IV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특징	1. 임진왜란 일기의 집중적 수록 2. 기행일기 편중적 경향 3. 20세기 일기의 다량 보유	
V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활용	1. 호남학 관련 다각적 학술자료 제공 2. 호남인물의 입체적 파악에 활용 3. 문화콘텐츠의 원형자료로 활용 4. 인문학 교육자료로 활용	
부록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목록(문집 저자명 가나다순)		

저서의 I 장은 서론의 역할을 하는 장으로, 연구의 목적 및 의도, 호남문집의 현황,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의 조사 과정, 본 저서에서의 일기자료 범주 등을 설명하였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일기를 호남지역 일기자료에 포함시켰는지 특별한 설명이 따로 없어서 DB 구축된 일기자료를 보고 이를 파악했었다. 이는 ‘호남기록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국학진흥원 일기류D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리집의 소개 부분에 설명이 있더라도 분량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는 저서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 자료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였다.

호남문집에 대해서는 선행 조사·정리 및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¹⁷⁾ 조

사 대상 문집에 대한 범위 설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다.¹⁸⁾ 그리고 문집에 실린 일기류의 글 중 어디까지를 일기로 보고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 일기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는 저서 I 장의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선조들이 오랜 기간 일기로 인식하고 작성했던 글들을 현대의 잣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 저서는 연구자들, 일반 대중들에게 최대한 많은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저자와 관련한 것으로 문집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일기가 문집에 수록된 경우,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 형식과 관련한 것으로 날짜가 나오되 하루간의 일기가 기록된 경우나 여러 날의 일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었으나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¹⁹⁾

이러한 기준으로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총 565편을 확인하였으며, II장에서는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의 시기별 현황을 살폈다. 565편의 세기별 수량은 14~15세기 5편, 16세기 75편, 17세기 59편, 18세기 57편, 19세기 172편, 20세기 197편으로, 각 세기별로 절을 나누었다. 각 절의 첫 부분에서는 세기별로 일기 목록 전체를 먼저 제시하여 어떠한 일기가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 호남문집 정리 현황에 대해서는 2013년에 발표된 김대현·김미선의 논문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호남문화연구』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이후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현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에서 『호남문집 기초목록』(전남대학교출판부, 2014)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또 ‘호남 기록문화유산’ 내 문집 분야에는 1,730종 문집에 대한 기초 DB가 구축되어 있기도 하다.

18) 이와 관련 저서의 5쪽에서 “연구의 대상인 호남문집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출생하였거나 이 지역과 긴밀한 관련을 맺은 인물의 개인 한문문집’을 말한다. 이는 호남문집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호남지방문화연구원(구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호남에서 출판된 문집, 호남지역에 소장된 문집도 호남문집이라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간행, 보관과 상관없이 저자를 중심으로 호남문집의 범위를 정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9) 김미선, 앞의 책, 15~24쪽.

록 하였고, 이후 각 세기별 일기의 내용별 수량 및 비율, 주요 작품과 저자, 한 문집에 2편 이상 수록된 경우, 세기별 특징과 가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분석보다 일기자료를 조사정리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목록으로, II장에서 제시한 일기 목록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16세기 호남문집 소재 일기 목록’의 일부²⁰⁾

순번	일기명	수록 문집	문집 저자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요약	내용 분류
1	금골산록(金骨山錄)	망헌선생문집(忘軒先生文集)	이주(李胄)	1468~1504	1502년 9월	진도 유배 중 금골산에 다녀온 일을 기록.	기행일기 유기
2	부경일기(赴京日記)	양곡선생문집(陽谷先生文集) 권14 잡저	소세양(蘇世讓)	1486~1562	1533년 11월~1534년 4월 28일	진하사로서 중국 연경에 다녀온 일을 기록.	사행일기
3	연행록(燕行錄)	면앙집(倂仰集) 속집 권1	송순(宋純)	1493~1583	1547년	사절로서 추천받고 출발할 때의 일을 짧게 기록.	사행일기
4	조천록(朝天錄)	회산집(檜山集) 권2	정환1(丁煥)	1497~1540	1537년 7월 1일~11월 14일	서장관으로서 중국 북경에 다녀온 일을 기록.	사행일기
5	서행기(西行記)	회산집(檜山集) 권2	정환2(丁煥)	1497~1540	미상	서울에서 평양까지 유람한 일을 기록.	기행일기 유기

모든 세기별 목록은 위와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일기명, 수록

20) 김미선, 앞의 책, 42~43쪽.

문집, 문집 저자,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요약, 내용 분류' 항목을 채우고 있다. 목록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II장의 첫 부분에 설명이 실려 있다.

각 세기별로 제시한 목록의 항목은 순번, 일기명, 수록 문집, 문집 저자,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요약, 내용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 문집의 경우 문집명과 함께 몇 권의 어느 부분에 실렸는지까지 제시하였다. 요약은 일기의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집약한 것이며, 내용 분류는 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 10가지 중 무었에 해당하는지를 적은 것이다.²¹⁾

이외에도 인물의 생몰연도가 두 세기에 걸쳐 있고 일기의 일자가 미상인 경우 저자가 살았던 기간이 더 긴 세기에 일기를 포함시킨 점, 목록 수록 순서는 저자 생몰년 순서로 하고 한 문집에 2편 이상의 일기가 있는 경우 문집에 수록된 순서를 따른 점, 내용 분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실린 경우 각 일기의 주된 부분을 먼저 쓰고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을 다음 줄에 넣은 점, '유기'는 일기 하위가 아니지만 문학의 한 장르로서 널리 쓰이고 일기 형식인 것이 많으므로 표기한 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²²⁾

저자명 다음에 숫자가 있는 것은 한 문집 안에 2편 이상의 일기가 수록된 경우에 번호를 붙여 문집 수록 일기 중 몇 번째인지를 표기한 것이다. 일기자료 수가 5편으로 적은 14~15세기를 제외한 16세기부터는 한 문집에 2편 이상 수록된 경우를 별도의 표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21) 김미선, 앞의 책, 37쪽.

22) 김미선, 앞의 책, 35~37쪽.

〈표 4〉 ‘16세기 호남문집 소재 일기 중 한 문집에 2편 이상 수록된 경우’의 일부²³⁾

순번	일기 편수	수록 문집	문집 저자	일기명	비고
1	2편	회산집(檜山集)	정환(丁煥)	조천록(朝天錄), 서행기(西行記)	
2	2편	미암집(眉岩集)	유희춘(柳希春)	일기(日記), 경연일기(經筵日記)	
3	2편	삼도실기(三島實記)	임계영(任啓英)	산서일기절록(山西日記節錄), 충무공난중일기절록(忠武公亂中日記節錄)	두 편 모두 다른 사람의 일기를 수록.

II장에서는 일기 목록 전체를 수록하는 등 일기자료 제시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일기자료가 197편인 20세기 호남문집 소재 일기 목록은 117쪽에서 137쪽까지 21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III장에서는 일기작품 분석에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내용별 일기를 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 등 각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내용별로 시기별 수량을 제시하고, 일기작품 원문 예시를 들면서 어떠한 내용과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담은 목록만을 제시하였으며, 목록의 형식도 내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생활일기의 경우 수록 기간별로 정리하여 ‘수록 기간, 일기명, 수록 문집, 문집 저자, 해당 세기’ 항목을 담은 목록을 제시하였고, 강학일기의 경우 ‘스승을 만나고 돌아오는 여정을 담은 강학일기’, ‘스승 문하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강학일기’ 등의 목록을 따로 제시하되 ‘일기명, 수록 문집, 문집 저자, 해당 세기, 요약’ 항목을 담도록 하였다.

IV장과 V장에서는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의 특징과 활용을 살펴서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호남문집 소재

23) 김미선, 앞의 책, 55쪽.

일기자료의 특징으로는 첫째, 단일 경험 중 임진왜란에 대한 일기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둘째, 내용별 일기 중 기행일기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셋째, 시기 중 20세기 일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의 활용으로는 ‘호남학 관련 다각적 학술자료 제공’, ‘호남인물의 입체적 파악에 활용’, ‘문화콘텐츠의 원형자료로 활용’, ‘인문학 교육자료로 활용’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서의 말미에 부록으로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목록(문집 저자명 가나다순)’을 수록하고 있다. II장에서는 세기별로 일기 목록이 나누어져 있는데, 부록에서는 565편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였으며, ‘문집 저자, 일기명, 수록 문집, 해당 세기, 내용 분류’ 등 5가지 항목만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는 연구서이지만,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 565편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는 등 호남지역 일기자료를 조사정리한 성과로서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었다. ‘문집에 수록된 일기’라는 수록 형태에 제한을 두었지만 565편에 이르는 가장 많은 호남지역 일기자료를 볼 수가 있었다. 또 저서라는 특성상 일기의 범주, 시기별·내용별 분류 기준 및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훗날 일기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활용 가치

II장에서 살펴본듯이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로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분야에 구축된 230편 일기의 DB, 저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에 제시된 565편의 일기 목록 및 설명이 있다. 두 사례는 호남지역 일기자료 전체를 조사하지 못한 점, DB의 경우 일기자료 수량이 적은 점, 저서의 경우 필사본은 살피지 못하였고 연구서라는 특성상 자세한 해제 및 원문은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기자료 조사정리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호남지역’이라는 일정 지역의 일기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한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의 일기자료 조사정리 시 활용 가치가 있다.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의 활용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은 일기자료 조사정리를 위한 범주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에 경북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제’²⁴⁾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일기자료 조사정리를 시행할 때, 어디까지를 일기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해당 지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범주 설정이 먼저 필요하다.

한시, 가사와 같은 시가의 경우 해당 장르에 대한 논란이 적지만, 형식이 자유로운 일기의 경우 어디까지를 일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 실제 일기자료를 조사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보면 범주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나 ‘국학진흥원 일기류DB’와 같은 일기자료 DB의 경우 해제나 일기 원문을 보면서 어디까지를 일기로 보는지 추정하며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경우 이우경, 송재용, 정구복, 정하영, 염정섭 등 기존 연구자들의 일기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²⁵⁾ 저자내용·형식 관련하여 다양한 일기자료를 예로 들면서 어디까지를 일기로 볼 것인지를 정리하고 있어, ‘일기’의 범주를 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범주를 정할 때도 참조할 수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의 경우 ‘호남사람이 쓴 일기’,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를 모두 호남지역 일기자료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2019년 한국학진흥사업(한국학기초자료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기간은 3년, 연구책임자는 정재훈이다. (‘한국학진흥사업단’ 누리집(<http://ksps.aks.ac.kr/>) ‘공지사항’ 부분의 2019년 6월 14일자 공지 「2019년 한국학진흥사업(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한국학총서사업) 신규과제 최종 선정 공고」 참조)

25) 김미선, 앞의 책, 15~17쪽.

‘국학진흥원 일기류DB’는 전국의 일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러한 지역 범주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영남지역, 강원지역 등 다른 지역 일기를 조사정리하면서 지역의 범주를 정할 때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기의 범주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나 하루간의 일기가 기록된 경우도 일기자료에 포함시켜 범위를 넓게 본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견해에 동의하며, 지역의 범주에 있어서는 ‘호남사람이 쓴 일기’,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를 모두 포함시킨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의 범주에 동의한다. 다만 DB 구축 시에 ‘해당 지역 사람이 쓴 일기’와 ‘다른 지역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쓴 일기’를 분류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은 일기자료 해제 및 DB 구축을 위한 항목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 문집에 대해서는 ‘한국고전종합DB’ 내의 ‘한국문집총간’을 비롯, 한국국학진흥의 ‘유교넷’,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문집 분야, 경상대학교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 등에 많은 DB가 구축되어 있고,²⁶⁾ 지역별 문집 해제집도 다수 발간되었다.²⁷⁾ 그렇기 때문에 앞선 조사정리 성과를 참조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일기자료의 경우 DB로는 ‘국학진흥원

26)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유교넷(<http://www.ugyo.net/>) ;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or.kr/>) ;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27) 호남지역 문집 해제집만 예를 들어 보아도 다음과 같다.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光州圈文集解題』, 광주광역시, 1992 ;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全南圈文集解題』 I·II, 금호문화, 1997 ; 박완식 외, 『전북 선현 문집 해제』 1~6,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2003~2008 ; 박완식 외, 『전북 선현 문집 해제』 7~8, 호남고전문학연구원, 2009~2010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경인문화사, 2007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20세기 호남 주요 한문 문집 해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지역 간행본 한문문집 간명해제』 上·下,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등.

일기류DB'와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해제집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해제집 정도만을 볼 수 있다. 곧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는 한국의 일기자료에 대한 몇 안 되는 중요한 조사정리 성과물로서, 앞으로 일기자료를 해제하고 DB를 구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항목은 '인물정보(자, 호, 본관, 생몰년, 생애, 문집유무), 해제, 번역 예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도 수록되어 있다. '문집유무'나 '번역 예시'는 '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는 없던 것이며, '국학진흥원 일기류DB'는 원문 텍스트가 수록되고 있고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항목과 '국학진흥원 일기류DB' 항목을 참조하여 더 효율성이 높은 일기자료 해제 및 DB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각 일기에 대해서는 '서지사항, 저자정보, 일기 내용, 원문 텍스트, 문집 유무, 번역 예시' 등의 항목을 담되, 전체적으로 주제별, 시기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게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은 일기자료의 시기별·내용별 정리 기준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의 경우 시기별·내용별 분류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경우 일기자료를 시기별(14~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내용별(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로 분류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일기가 양 세기에 걸쳐있을 때 어떻게 구분했는지, 일기에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을 때 어디에 넣었는지, 사람의 일생과 관련해 내용별 일기를 어떤 순서로 제시했는지 등 시기별·내용별 정리 과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자료를 시기별·내용별로 정리할 때 이 사례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자 개인이 논문을 쓰거나 한 두 일기 작품의 특징을 연구할 때는 일기를 굳이 한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최부 『표해록』의 경우 표류일기, 사행일기, 기행일기 등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분류에 넣기도 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일기를 정리할 때, 특히 DB로 구축할 때는 내용별 일기의 수량, 주된 내용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해 분류를 해야 정리가 용이하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가 20~30가지로 많아진다면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학진흥원 일기류DB’는 ‘주제별’로도 일기DB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생활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신일기, 전쟁관련일기, 사건전문일기, 유배일기, 독서학문일기, 임종장례일기, 서원일기, 향교영당관련일기, 상소일기, 변무일기, 묘소묘비관련일기, 출판일기,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10가지 분류, ‘국학진흥원 일기류DB’ 16가지 분류를 참조한다면 추후 더 효율적인 일기자료 분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와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의미 있는 첫 시작으로서, 훗날에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예컨대,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DB는 시기별·내용별 분류가 없어서 아쉬운데 훗날의 일기자료 DB는 처음부터 분류도 함께 제시하면서 DB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고민하며 정리했던 자료들은 뒷날의 일기자료 정리에 활용되어, 더 나은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가 도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를 살펴보고,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의 활용 가치를 정리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사례로, ‘호남기록문화유산’ 내의 일기자료 DB, 저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를 살펴보았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분야에는 230편의 호남지역 일기자료 DB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170편은 기초 DB(인물정보, 해제, 번역 예시, 이미지 일부)만, 60편은 기초 DB 및 원전 전체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었다. 일기자료 DB를 살펴본 결과 판본이나 수록 형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한문으로 쓴 개인일기’ 중 ‘호남사람이 쓴 일기자료’,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지역에서 쓴 일기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하여 DB로 구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저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는 연구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565편이라는 가장 많은 호남지역 일기자료가 집성되어 있어 조사정리 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호남문집 소재 일기자료의 시기별 현황(14~15세기 5편, 16세기 75편, 17세기 59편, 18세기 57편, 19세기 172편, 20세기 197편)을 살펴되, 세기별로 일기 목록 전체를 먼저 제시하여 어떠한 일기가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때 목록은 ‘일기명, 수록 문집, 문집 저자, 저자 생몰연도, 일기 기간, 요약, 내용 분류’ 항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용별 일기를 생활일기, 강학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전쟁일기, 의병일기, 사건일기, 장례일기 등 각 특성에 맞게 재분류하고 있었다. 저서의 말미에 문집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565편 전체 목록이 다시 수록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일기의 범주, 시기별·내용별 분류 기준 및 방법 등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III장에서는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 성과물의 활용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일기자료 조사정리를 위한 범주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일기자료 해제 및 DB 구축을 위한 항목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일기자료의 시기별·내용별 정리 기준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 조사정리는 현재 약간 정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호남문집에 실린 일기로 제한을 둔 호남지역 일기자료가 565편인데, 수록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지역 사람이 호남에서 쓴 일기도 포함한 ‘호남기록문화유산’ 내 일기자료는 230편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DB화된 일기의 수량이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저서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경우 일기 목록 전체를 싣고, 참고문헌에 해당 일기자료가 실린 문집의 소장처를 밝히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연구자들은 다시 원문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한다. DB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구축된 DB는 연구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호남의 필사본 일기자료, 호남지역을 배경으로 한 일기자료 등 호남지역 일기자료가 전체적으로 조사정리되고 DB화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영남지역 일기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목록 및 해제 작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기자료 조사정리가 시행되어 지역의 일기자료들이 집성되고 알려지면 일기 연구에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호남지역, 영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지역별 일기자료 조사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의 일기자료가 집대성되고 일기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1 - 대구·경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2 - 인천·경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3 -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4 - 충청·강원·전라·경남』,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3 - 일기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45~177쪽.
- 김대현·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41~72쪽.
- 김미선, 「기행일기 정리의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문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409~440쪽.
-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53,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9, 33~64쪽.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화회, 2019, 151~182쪽.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417~450쪽.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3~36쪽.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박완식 외, 『전북 선현 문집 해제』 1~6,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2003~2008.
- 박완식 외, 『전북 선현 문집 해제』 7~8, 호남고전문화연구원, 2009~2010.

-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220~263쪽.
-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光州圈文集解題』, 광주광역시, 1992.
-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全南圈文集解題』 I·II, 금호문화, 1997.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20세기 호남 주요 한문 문집 해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경인문화사, 2007.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문집 기초목록』,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지역 간행본 한문문집 간명해제』 上·下,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 정구복,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3~24쪽.
-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25~43쪽.
-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5~40쪽.
-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29~60쪽.
-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257~283쪽.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학진흥원, 2007, 763~797쪽.

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검색일 : 2020. 1. 16.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검색일 : 2020. 1. 23.

시민의 소리(<http://www.siminsori.com/>) 검색일 : 2020. 1. 20.

유교넷(<http://www.ugyo.net/>) 검색일 : 2020. 1. 23.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 2020. 1. 23.

한국학진흥사업단(<http://ksps.aks.ac.kr/>) 검색일 : 2020. 1. 23.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or.kr/>) 검색일 : 2020. 1. 20.

Abstract

Cases of Historical Diary Materials in Honam and The Value of Using Them

- Focused on working out measures to survey and arrange diary materials

Kim, Mi-sun

This paper examines cases of surveying and arranging historical diary materials in Honam, and presents the values of using such outputs in connection with efforts to work out measures fore surveying and arranging diary materials.

230 such cases were found in the chapter on diary materials of the constructed database of Honam Recorded Cultural Heritage. The review of the database revealed that the recording types were not limited to woodblock printing with the personal diaries written in Chinese divided into the diary materials written by Honam people and into those written by people in other regions.

The record 『Diary Materials in Honam Literary Collections』 is of stronger nature of research, but contains 565 pieces of diaries, the largest collection of Honam diaries, indicating a need for surveying and arranging cases. In particular, the review of diary materials of Honam literary collections by period presents situations by period, and yet features a whole list of diaries by century, giving a look at the whole picture of data. Overall, detailed explanation was given about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lassification by the scope of diary, period, and content

Regarding measures for working out diary materials, the values of using the output of surveying and arranging Honam diary material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output can be used for defining the survey and arrangement scope. Second, the output can be used for defining items for the interpretation of diary materials and for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Third, the output can be used for setting the criteria for arranging the diary materials by period and content.

keywords :

Honam region, diary materials, Honam Recorded Cultural Heritage, Honam literary collections, survey and arrangement, construction of database, the value of utilization

